

개교 기념사

금강대학교 교직원불자회가 주관하는 개교 19주년 기념 법회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금강대학교는 대한불교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에 따라 2002년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 국사봉 아래에 세워진 종립대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깊은 뜻을 새기고, 종단의 대덕스님들의 혜안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육은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긴 숙성 기간을 요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스퍼드대(1096년)나 하이델베르크대(1386년 개교) 등 유럽의 대학들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건국 자체가 일천한 미국에서도 1638년에 학생 9명과 교수 1명의 신학교로 출발한 하버드대도 올해로 38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대학들은 모두 100년 이상의 연륜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시작인 법관양성소가 1895년 3월에 문을 열었으니 이제 126년이 된 셈입니다. 올해 19주년을 맞는 금강대학교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오로지 천태종단의 헌신적인 지원과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의 성원, 교직원들의 노고,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든 국내 차원에서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학은 그 동안 누려왔던 지식의 산실이라는 위상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적어도 세 가지의 세기적(世紀的) 변화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근대성 혹은 근대주의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회의(懷疑)와 반성입니다. 근대화가 절정에 달했다고 믿었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과학과 이성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고 믿었던 20세기에 끊임없는 국가 간의 전쟁과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맹목적인 산업화 추구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근대화가 초래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대화를 추구하던 시대에 그것을 이끄는 사상과 지식창출의 중심에 있던 대학이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의 진보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혁명은 인류 삶의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지식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외우고 쓰는 교육을 하는 대학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 최고인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AlphaGo)에게 속수무책으로 패하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총아들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가 모두 대학을 중도에 자퇴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대학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세계체제의 변화가 대학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지배하던 국민국가의 제도적 및 물리적 테두리에 구멍이 송송 뚫리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을 전지구화 아닌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기란 어렵습니

다. 방탄소년단(BTS)의 전 세계적 인기몰이도 결국은 전지구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무료로 공개하는 노벨상 급 교수의 강의 내용을 누구든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변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기존의 대학이 담당하던 지식의 내용과 접근방법과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시대적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최고 수준의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지적 제도로써 앞으로도 계속 남아 역할을 담당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큰 물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치열하게 혁신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기적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대학에 대한 도전이 국내 대학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대학들에게 부과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던 대학의 교육을 이제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만 하는 과제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는 대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도전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상호 연계시키면서 한국의 대학들이 소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비롯되는 타격은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지방의 위기로 연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정원의 축소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이 같은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대학의 ‘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단지 서울에 있거나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치면 주립대학들처럼) 많은 수의 학생들을 (단지 등록금 수입 때문에)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대학의 두 번째 문제인 교육의 질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열과 명석한 학생들이 있는 나라에서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한 주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던 비수도권이던 한국의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세계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기존의 학생 정원을 대폭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학 발전에서 재정적 뒷받침은 핵심 요건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문제를 지금처럼 기업으로 치면 저급 상품을 개발하여 박리다매(薄利多賣)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학들이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 공공정책적인 다양성과 유연성의 사고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강대학교도 지난 몇 년 전부터 주어진 극복해야할 몇 가지 큰 현안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위기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한국 대학들의 문제가 우리대학교에도 2021학년도부터 당면과제로 대두하였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획일적인 양적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는 주기적인 평가 체제에 대해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질적 측면이 제대로 인식되고 평가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수 년 전에 내부적인 요인까지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전이 있을 때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원활한 유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평가라는 중대한 시기에 내부 불협화음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재(人災)였습니다. 금년도 교육부 대학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조차도 그 내용을 떠나 관련 인사들에 의한 학교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는 경우에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현안인 입학관리를 포함하여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한분 한분이 학교 일을 단순히 ‘직장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일’로 인지하시고 힘을 합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의 건학’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가 포함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세계적인 변화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먼저, 근대주의의 극복과 보완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근대주의는 본래 서양에서 만들어진 사조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 백 년 동안 서양에서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토대가 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추구한 부강국가 정책을 통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서양에서 이룩한 근대화는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동양적인, 특히 불교적인 사상과 접근방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不二)’의 사상, 자연에 대한 정복이 아닌 공존, 타자나 타국에 대한 배척이 아닌 포용, 분노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사고에서 서양의 이분법(二分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것은 모두 배척함으로써 또 다른 이분법적 실책을 범하는 접근방법과는 다릅니다. 서양에서 발전시킨 것은 그것대로 포용하여 활용하되,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사고방식과 접근방법을 통해 인류 문명에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넉넉한 마음과 실용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금강대학교는 전지구화 추세에도 적극 부응하여 교육의 글로벌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미국 대학들과의 ‘2+2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 국내·외 명문 대학원과 로스쿨 진학을 적극 권장하며 지원할 생각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입학 직전인 매년 2월에 ‘예비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입학 후에는 ‘비교과 과정’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대, 런던정치경제대, 예일대 등의 ‘철학정치경제(PPE)’ 프로그램을 한국 실정에 부합하도록 벤치마킹하여 도입함으로써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장차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교육 방법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통신 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공통필수로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 과학’을 학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시대에 대두할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성 교육도 금강대학교가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립대학들은 해당 종교가 지향하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설립하고 지원합니다. 이 뜻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굳이 지금처럼 대학이 넘쳐나는 마당에 종립대학들이 존재할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종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금강대학교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직원에 대해서도 개인적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화하지 않는, 넉넉한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강대학교에서 공부한 졸업생은 모두 훌륭한 인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인재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온갖 부조리와 반인륜적인 범죄가 횡행하는 시대에 인성을 갖춘 인재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특성화 발전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으며, 내년 11월 개교 20주년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개교 30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우리 대학교가 동아시아 최고의 교육의 질을 자랑하는 한국형 리버럴아츠 대학으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우리의 발전목표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모두의 인내와 노고와 정성이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의 이해와 헌신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념 법회에서 법문을 해주실 정장호 법인사무처장스님과 집전을 담당하시는 신거성 부처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박찬기 회장님, 김구민 감사님, 정진철 총무님을 비롯한 불자회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개교기념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